

## 히로카와라

기쿠치 계곡의 두 산책로 가운데 긴 쪽 산책로는 탁 트였으며 강이 얇아 흐름이 비교적 잔잔한 '히로카와라'에서 방문자 센터로 되돌아간다. 길은 개구리와 작은 도롱뇽, 수생 곤충의 서식지가 되는 작은 연못들 사이에 구불거리며 뻗어 있다. 또한 바둑판 모양으로 갈라진 암석 지대가 눈에 띈다. 이 암석은 27 만 년 전, 아소산 분화에 의해 방출된 화산재가 고온에 용융되어 형성되었다. 암반이 식어 갈라질 때 생겨난 틈은 물이 흐르면서 서서히 깊어졌다.

히로카와라에 놓인 다리 아래에서는 기쿠치 계곡에 서식하는 두 종류의 물고기 가운데 하나인 산천어가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또한 다리 위에서, 특히 상류 방향에서는 녹색의 민물 김이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 민물 김은 옛날부터 먹어왔으며 기쿠치 계곡의 민물 김은 특히 맛있다고 여겨졌다. 에도 시대(1603~1867 년)에는 구마모토번의 다이묘(넓은 영지를 다스린 대영주)가 에도의 쇼군에게 지역의 민물 김을 헌상했다고 한다. 현재 민물 김은 상당히 귀해졌으며 기쿠치 계곡은 민물 김이 자라는 드문 곳 중 하나다.